

불 속으로 반야다라의 몸이 휘감겨 들어갔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8) 남천축에서의 화행(化行)

역사의 기록에는 반야다라가 계승을 통해 보리달마에게 법을 전해 주었다고 쓰여있다. 물론 이 기록이 틀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가섭 존자 이래로 단전(單傳)된 법통은 단순히 계승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소리만이 아닌 빛과 파장(波長)으로 현관(玄關)에 지적(指點)됨으로써 전해지는 것이다.

반야다라는 보리달마에게 마지막 계승을 읊은 다음 두 손바닥을 활짝 폈다. 곧 이어 손바닥 한가운데서 오색찬란한 빛이 발산되었다. 눈이 부셔 바로 볼 수가 없었다. 동시에 반야다라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다.

사방으로 퍼지던 오색의 빛살은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큰불이 되었다. 그 불 속으로 반야다라 조사의 온 몸이 휘감겨 들어갔다.

보리달마가 이런 광경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커다란 놀라움 속에서 조사를 향해 엎드렸다.

“조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맹렬한 불길은 곧 사그라졌다. 이윽고 공중에선 사리가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다. 보리달마는 승복을 걸어올려 쏟아져 내리는 사리를 활망히 받아 안았다. 사리에선 영롱한 빛이 감돌고 향기가 사방에 퍼졌다. 보리달마는 다시 공중을 향해 수없이 절을 했다. 사리를 소중하게 받들고 분당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이어서 정중하게 의식을 치렀다.

‘능가경’을 법보로 삼아

보리달마는 반야다라 조사의 가르침을 잇을 수가 없었다. 그 가르침은 날이 갈수록 더욱 새롭게 다가왔다. 그는 조사가 물려준 4권의 능가경(楞伽經)을 법보로 삼았다. 스승이 말한 대로 보리달마는 남천축에서 교화에 힘을 기울였다. 중생들을 향해 널리 무상(無相)을 선양했다. 무상으로써 망념(妄念)을 깨뜨리고, 무상으로써 실상(實相)을 드러내게 하여 자신을 뛰어 ‘진여(眞如)’ ‘열반(涅槃)’ ‘법신(法身)’을 이루는 것이 정도라고 가르쳤다.

보리달마는 일체의 상식적인 얽이 모두 진실이 아님을 체득해야만 비로소 진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경계(境界)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벽관(壁觀)’을 강조했다. 흔히 달마의 ‘벽관’은 소림사에서 9년 면벽이 처음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체계는 이미 오래 전에 갖추어진 것이었다. 이것은 이른바 이입사행(二入四行)도 마찬가지다. 이것 역시 보리달마

가 남천축에서 이미 가르쳤던 것이기 때문이다.
 달마의 ‘벽관’은 대개 ‘면벽’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벽을 향해 앉는 것과 벽을 등지고 앉는 것으로 나누어 벽관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벽관’의 참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마음을 벽과 같이 하여 망념이 끼여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입(理入)’을 통해 자기 마음의 청정한 본성을 깨달아 열반을 증득하고 해탈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보리달마의 가르침이다.

보리달마는 이입(理入)과 함께 행입(行入)을 강조했다. 행입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서 사행(四行)이라고도 부른다. 사행의 첫째는 보원행(報怨行)이다. 힘든 길을 뚫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음을 이르는 것이다. 둘째는 수연행(隨緣行)이다. 후박(厚薄)과 득실(得失)을 따지지 않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셋째는 무소구행(無所求行)이다. 탐욕을 버리고 소유를 끊는 것을 이르는 것이

하에 들어왔다. 불대선은 차츰 두각을 나타내 보리달마와 함께 이른바 감로이문(甘露二門)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불대선은 보리달마와 전혀 달랐다. 여전히 소승선법을 숭봉하며 널리 문도들을 거두니 그의 문하엔 재재다사(才多士多)가 모여들어 가히 천하를 뒤덮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많은 문도들은 제각기 갈라져 별도로 자기의 견해를 내세우며 교화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래서 생겨난 것이 이른바 육종(六宗)이다.

종파들 설복해 하나로

육종의 첫번째로는 유상종(有相宗)이 손꼽힌다. 두번째로는 무상종(無相宗), 세번째로는 정혜종(定慧宗), 네번째는 계행종(戒行宗), 다섯번째는 무득종(無得宗), 여섯번째는 적정종(寂靜宗)이다. 이처럼 여러 종파가 생겨나 적지 않은

“보리달마는 승복을 걸어 쏟아져 내리는 사리를 황망히 받아 안았다”

다. 넷째는 정법행(稱法行)이다. 일체의 행위가 법상(法相)과 맞아야 함을 이르는 것이다.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을 합해서 이입(二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두 가지가 뜻하는 바는 바로 반야성공(般若性空)의 공(空)을 구하는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보리달마가 남천축에서 교화에 힘을 무릅쓰고 갖은 이름 높은 두 사람의 선사(禪師)가 있었다. 한 사람은 불대선(佛大先)이고 또 한 사람은 불대승(佛大勝)이었다. 이 두 사람은 일찍이 보리달마가 천상사(天象寺)의 발타대사(跋陀大師) 문하에서 공부할 때 만난 도반이었다. 당시 발타대사는 소승선(小乘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보리달마는 인연 따라 반야다라의 수제자가 되어 법통을 잇게 됐다. 반야다라는 소승을 버리고 대승선(大乘禪)을 배우라고 가르쳤다. 보리달마에 뒤이어 불대선도 반야다라의 대승선 문

훈이 일어났다. 서로 의리(義理)를 저버리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가 하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보리달마는 이런 상황을 매우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는 소승이니 대승이니 하며 나누는 것 자체를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던 터였다. 그는 갈수록 더욱 넘어서는 종파들의 다툼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다. 어떻게 하든 종파들을 설복해 하나로 귀의시켜야만 한다고 마음먹었다.

보리달마는 가사를 갈치고 서둘러 길을 나섰다. 그가 맨 처음 찾은 것은 유상종의 살바라(薩婆羅) 존자였다.

이윽고 한낮이 다 되어 유상종의 본거지에 도착했다. 때마침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더니 이내 검은 구름이 몰려들었다. 금새라도 한바탕 폭우가 쏟아질 듯 싶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산문에 들어섰다. 산문 안에선 노승 한 사람이 손을 이마에 대고 먼 곳을 살피고 있었다. 보리달마는 성품 노승



앞으로 다가왔다.
 “삼가 여쭙겠습니다. 살바라 선사를 찾아뵈러 왔습니다만...”

노승은 천천히 보리달마를 살펴본 후 두 손으로 합장하며 대답했다.
 “대사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여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보리달마는 어깨를 짓으며 한바탕 크게 웃었다.
 “제가 제대로 찾아왔군요. 유상종의 존자를 이렇게 만나니... 오래 전부터 명성은 익히 들어 왔습니다만,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 영광입니다.”

노승은 짐짓 놀리면서 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사의 법호는 어떻게 되시지요?”

“예, 저는 보리달마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살바라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보리달마가 찾아오

리라곤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리달마가 누구인가. 석가모니불의 27대 조사인 반야다라의 법통을 이어받은 28대 조사가 아니던가. 일찍부터 만나고 싶었던 분이 몸소 산문을 찾아 왔으니 그 놀라움과 감격이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살바라는 보리달마가 이처럼 온 데는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짐작했다. 황공스런 자세로 웃음을 여미며 몸을 숙였다.

“조사께서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미처 알아뵈지 못하고 제대로 맞이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리달마도 합장하며 고개를 숙여 읊했다.
 “조사께서 오셨으니 반드시 무슨 가르침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셔서 말씀하십시오.”
 “중합니다. 중합니다.”
 보리달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살바라를 뒤따랐다.

두 사람이 들어선 방은 넓고 밝았다. 정면엔 못칠한 검은 제단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석가모니불의 목조각상이 모셔져 있었다. 남쪽으로 난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창 밖으로 작은 풀이 보였다. 창가엔 장방형의 책상이 놓여 있고, 책상머리에 한 무더기의 경전이 쌓여 있었다.

살바라는 매우 정중하게 보리달마를 상석으로 모셨다. 그러나 눈길은 보리달마의 얼굴에 꽂혀 떠나질 않았다. 굵은 눈썹 아래의 두 눈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다. 맑은 눈 속의 깊이는 도저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일체를 통찰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에 살바라는 마음과 몸이 함께 떨렸다.

보리달마가 좌정하자 살바라가 공수(拱手)하며 공손하게 물었다.

떨리는 살바라의 마음

“삼가 여쭙겠습니다. 조사께서는 무슨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시는지요? 소승은 학습고대하고 있습니다.”

“듣건대, 조사께서는 스스로 하나의 종파를 세워 이름을 유상종이라고 하셨다지요. 빈승(貧僧)이 여기 온 것은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라니요, 당치도 않으십니까.”

살바라는 당황해하면서 손사래를 쳤다.

순간 보리달마가 벌떡 일어섰다. 정색을 하면서 살바라에게 질문을 던졌다.
 “빈승이 듣기로 유상종은 실상(實相)을 중시한다던데, 일체의 모든 법을 어찌 실상이라고 할 수 있소?”

살바라가 응수했다.
 “제상(諸相) 가운데서 함께 될 수 없는 것을 이룸으로써 실상이라고 합니다.”

보리달마는 깔깔 웃었다.
 “일체의 형상 가운데 서로 함께 될 수 없는 것을 실상이라고 이룸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한다 말시오?”

살바라가 지체없이 대답했다.
 “제상 중에는 실로 정해짐이 없고, 정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실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보리달마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제상은 정해짐이 없고 이를 실상이라고 칭한다는 것인데, 지금 만약 정해짐이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소?”

살바라는 멍청했다. 그러나 곧 이어 강변했다.
 “제가 정해짐이 없다고 한 것은 제상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상을 말한다던 당연히 정해짐이 있지요.”

보리달마는 큰소리로 웃었다.
 “그런 것이 아니오. 그것은 들렸소. 당신이 말하는 정해짐이 없는 것을 만일 실상이라고 칭한다면 그것은 곧 정해짐이 되는 것이니, 실상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요.”

살바라는 보리달마가 순간적으로 헛짚었다고 생각했다. 기회를 포착했다고 판단한 살바라는 기세 동동하게 논리적 공세를 퍼기 시작했다.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건강을 사셨습니까? 이제 **돌침대** 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나 쓰는 흉내만 들침대가 아닙니다. 최고급 천목, 최고의 기능 **리빙스톤 원적외선 돌침대** 는 선택받은 귀한만의 것입니다.

-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시겠습니까?
- ▶ 침대에 주시를 놓는다고요? 편도, 옆지, 앞대, 뒤, 등기에서 완전 예방
- ▶ 아직도 침대 전기장판을 쓰시나요? 온도는 자유롭게, 4계절은 즐겁게
- ▶ 매트리스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풍어지게 하는는 느낌이 없고, 허수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원적외선이란 빛은 열·반도체 촉진하고 효능성으로 부활 시키고 세포를 다시 젊게 하고 지방 분해 세정제와 건강관리를 유지시킵니다

리빙스톤 원적외선 돌침대의 효능...
 ◆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유탄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백을 차단하였습니다.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볼 수 있습니다.
 ◆ 한달 전기료가 12000원 안팎(1월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
 ◆ 고유기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아침건강 - 베개가 좌우합니다!
 뇌 혈액순환 촉진으로 머리를 맑게하는 **옥수수베개**

▶ 저고이면 머리가 땅하고 어깨가 바깥으로... 베개를 바꾸십시오.
 ▶ 통풍이 잘되고 선택도 간편한 옥수수베개

35,000→12,000원 (정액비는 3500원) **서두르십시오 부담없는 가격!**

※ 단체 주문 환영 ※ 침대 3대 이상 단체 구입시 특별 할인 가격 우대!! ☎ 02)424-9427 / 2203-7821